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대를 맞이하며

월간 『考試界』가 창간 5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考試界』는 1956년 5월 창간 이래 반세기를 넘는 긴 시간 동안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각종 수험 정보와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수험생의 길잡이이자 법적 쟁점에 관한 우수한 논문과 최신 판례 동향을 게재하는 법률전문지로 우리나라의 법학 및 법률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월간 『考試界』가 고시전문잡지이자 법률전문지로서 오늘날의 이러한 위상을 갖추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경이 없어진 지금의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조계 역시 2009년 9월 외국법자문사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지난 53년간 법조인 선발을 책임져온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변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해 대립이 첨예해지고, 갈등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법의 역할은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고, 법은 그 질서 안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공동

이 귀 남
(법무부 장관)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동하는 사회를 주시해야 하며, 법률가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선진 법치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받으신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엄정한 시험 관리와 수준 높은 출제로 사법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 체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시험을 주관합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검찰 실무실습, 실무교원 파견, 실무교재 개발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과 아울러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양질의 교육성과를 변호사 시험을 통해 정확하게 평가하여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월간 『考試界』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조인 선발 체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동하는 사회 현상에 발맞춰 변화하는 최신 법이론과 판례를 소개하여 새 시대의 법치를 담당할 수험생과 법률가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간 『考試界』가 오랜 역사와 경륜을 바탕으로 시대를 성찰하고, 수험생과 법률가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고시전문잡지이자 법률전문지로서 계속 발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